

마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

성경말씀: 빌1:19-30

성도의 삶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전화위복,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궁궐에까지 전달된다. 하나님의 신비, 인생의 아이러니, 오늘 은 바울의 또 다른 아이러니,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기도의 필요성

그는 18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함
그리고는 19절,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든지,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최종적인 구출, 구원을 확신한다 (19). 답후4:18

여기의 이것, 모욕, 치욕, 감옥 구속, 겉치레로 전하는 것, 신실하게 전하는 것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할 때 최종적인 구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런 확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울도 사람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19).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다준다(19).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존재, 성령님이 떠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성령님의 파워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4:8, 31; 7:55; 13:9, 52 등). 사도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파워를 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는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감옥,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힘을 얻었다.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다. 감사한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았다. 필요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결국 본인 혹은 타인의 구원으로 바뀐다(19).

바울의 유일한 소망

최종 승리를 확신하므로 그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확신을 더 확고히 갖게 되었다(20).
30년 사역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며 기대한 것, 확신을 가지고 바란 것,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외친 것,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20). 위대한 말이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그의 심정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높인다는 말: magnify, 원래 뜻, 확대한다. 돋보기, magnifying glass

위대하게 만든다. 존귀하게 만든다. 영화롭게 한다. 높인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의 별을 가깝게 크게 보려면 망원경 사용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망원경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깝게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바울의 말: 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연출되는 연극장과 같다. 그분의 존귀, 위대함, 파워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특히 우리의 미디어 사역 오직 그리스도를 높임
현시대 설교자 가운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분: 존 파이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높이는 것
바울의 위대함: 수없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믿음의 베테랑, 자기 앞에 놓인 핍박을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OK

21절: 이 모든 것 요약,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고후5:17), 그래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는가? 진리로 인해 목표가 뚜렷하다.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다.

바울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함 의미(갈2:20).

사는 것이 그리스도: 무조건 항상 안락한 삶(번영)을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위해 분투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 앞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삶
그러므로 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사역, 권능,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 결과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모든 것이 변해 그리스도처럼 된다(요일3:2). 빌3:9
현재의 성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

그러나 죽으면 이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의인으로 선다. 다시는 슬픔, 아픔이 없다(계21:4).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한다. 유종의 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죽는 것이 이득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한 것
내게는 사는 것이 잘 먹고 저축하고 골프하고 여행하고 TV 보고 쇼핑하고 음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러면 결국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된다.

조지 버나드 쇼: 1856-1950, 좌파 문학가, 노벨문학상 수상, 95세 장수

묘비: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엘리자베스 여왕, 부귀영화, 죽는 순간 “아이고 맙소사. 끝났네. 끝이 났어.”

우리가 죽는 날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바울의 성도 사랑(22-24)

바울의 고민: 죽는 것은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사는 것은 영화롭게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택하지 못하겠다(22).

그런데 죽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23). 죽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즉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중간 단계 거치는 것이 아니다(고후5:7).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그는 실제로 그것이 좋음을 체험하였다(고후12:4)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의 고백(딤후4:6-8)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면 남아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25)

그래서 그는 전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였다(26).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래서 그는 빌2:4를 쓸 수 있었다. 고후6장의 희극과 비극을 감내하였다.

죽는 것이 좋은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남아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나의 삶: 지난 27년 동안 성경, 지난 10년 동안 교회, 지나 3년 이상 성경 교정, 힘든 일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성경을 주고

갈 것이다. 최상의 교회를 주고 갈 것이다. 다 내 것이 아니다. 비천하게 태어났으나 너무나

귀한 것 많니 누렸다.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것, 우리 교회가 할 것, 내 뒤의 사람들이 할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의 부탁(27-30)

1.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27).

너희는 왕의 아들들이다.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 왕가의 아이들

이것이 복음을 지난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2. 믿으면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29-30). 그래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반대자들을 대적하는 싸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결론

1.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 기도

2.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3.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4.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